

雙玉樓下編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新

小

新

說

立

설

雙

玉

淚

下

쌍

編

옥

루

전

(城

書

行

하

京)

及

發

普

館

立公廉 著

日語通編

定價壹圓

郵稅十二錢

音學大家 金仁湜 著

教科適用 普通唱歌集

實價十五錢

郵稅八錢

數學大家 安一英 著

算術問題新解法全書

(分數部)

定價六十錢

郵稅八錢

文學士町田長作君 著

高日語古戰

實價三十五錢

郵稅八錢

李鍾麟 著

新篇道德經

定價二十五錢

郵稅八錢

數學大家 安一英 著

算術問題新解法全書 (完全數部)

實價五十錢

郵稅八錢

쌍옥누

(淚玉雙)

下篇



예일회

생

정옥초는 그부인과 아들정남을다리고 목포히안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야날
저지딩하엿더라

옥

누

경조는처음에 송도나려갈때부터 모음에나키지 안이하더니 이번에다시목포가
논길도 더욱엄려스러운 모음이스스로 일어난다 송도로갓슬때에도 우연이무
섭고 슬픈일을당하엿거늘 만일이목포가논길에도 그와같은비참한 디경을당하
면 엿지하리요 하는모음이잇서 가기를심히 주저하나 스나희가 임의결정하일
이요 또정남의병을 위하하하다하의 저괴의스스망념된싱각으로 남편을권하
여 말류치못하엿더라 그러나경조는 목포라하는말가온디 무엇시라 히쳐지못
할의미가 포함하것갓치 모음이스상하야 저괴의모음을 다시싱각하야보나월
리근본이업는싱각이라 엿지히싱함을엿으리요 다만나의몸이 병중으로하야 공
연이다심하디에서 이런모음이싱김인가하교 다시모음을 돌려엿더라

원리에목포라하는곳에는 십일년전에 리경조가 용산김소스집에서 히복하아달
을유모를맛기여 보녀여저지금것 그곳에서 가련하어린아기로 부모의얼골도

아지못하고 잘하는곳이니 생각건대 목포라는 일홈을 경주에게는 김히숨기
였으며 그씨는 경주가 산후에 병으로하여 정신을 상실하였던즉이라 그러나 경
주의귀에는 그윽히 남아있으며 심중에 도오히려 그씨일이 조금 남아있는 것같은
연고로 경주는 심리적 작용(心理的作用)으로 이와 같은 생각이 자연 일어나는 지
라 그러나 경주는 삶에 인들 조그가 심일년전에 나온 아들이 그곳에서 장성하여
가는 줄을 잊지 못하리오

경주는 경남의 병에 더하여 한갓 부친의 심녀만 일으키 일가 두려워하여 한번도
공주부친의는 괴별치 아니하였더니 더 흉산성을 떠나 날 당하여 비로소 부친에
게 일봉서찰을 못치여 경남이 그동안 병으로 지니다가 요사이부터 평복되어가
는 일과 병후조섭하기 위하야 의사의 말을 좇아 목포회안으로 피접가는 일을 일
일이 보았으며 서병삼과 그곳에서 우연이 만난 일을 김히숨기고 기록지안이
하였더라

경남의 병세 덜난 후 심여일이 지니여 정육조의 일행은 의성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나와 슈일묵은 후 다시 형장을 슈습하여가지고 인천으로 내려가서 괴선을 타
고 떠나서 그잇는 날 석양에 목포회안에 도착하였더라

목포라는 곳은 원리 정육조가 일즉이니 지에 유학할새에 괴선으로 왕니하며 괴
후의 온화함과 풍광의 선명함을 사랑하여 지낼새마다 그곳에 하류하여 기일을 머

무든 곳이라

그잇는 날 아침에는 여관하인 혼아를 다리고 각처 풍경을 완상하며 산로와 회
안으로 일행스인은 이시도록 비회하다가 오후에 이르러 다시 여관으로 도라온
이라

이곳은 목포항구에서 동으로 오리나아가서 변화한 것은 업고 슈습호잇는 조
고마촌어촌(漁村)이라 그러나 광주(光州)와 라주(羅州)로 통하던 도로가 잇난 고
로 비록 적막촌어촌이라도 정결한 여관은 두어 곳이잇스나 그중에도 놀흔곳에
히변경치를 바라보이는 여관하인이잇스니 일홈을 양신관(養神館)이라 일카르
며 촌중으로는 가장 일은 여관이라

정육조의 일행은 이곳에 휴인을 정하얏는디 날로 보이고듯는 것은 바다와 어부의
노리뿐이라 정육조는 잠시 동안 요란한 세상을 피하고 한적한 이곳을 택하여 있
라

데이회

「어머니이리와서 더식들 좀보오 하얀식들이 펴만이 날나당기고잇서」

한며양신관 이층다락우에서 난간을 붙들고 서서 정신업시 바다를 내려다보노
히는 경남이라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경주는 방으로 쏘츠란 간으로 내려오며

「참정말씨가 만코나 그게 무슨식들잇가 이이정남아 저! 괴바위우에도 식들

이만이잇구나 아! 더것보아라 한때가안졌네그려」

「마님어디셔가그러케 만이잇셔요 아이고 참만나잇구만 그게무슨셔스가요
싸마귀논안이지요」

정남은히변경치를 쳐음보는고로 신과훈모음을 익이지못하여

「흰싸마귀가 어디잇단말이요 어멈은아지못하고그리네 도련님 그럼그게무엇이요 갈가마귀인가 어멈은 싸마귀밖에 모른것세 우리셔울셔보던싸마귀가 어디더러옴의스가 더몸동아리가작고 빛도식쌈앗치」

그럼무슨셔인지 령감게엿쥬어보샤

「하며마로똥해서 세사름이 웃고짓거리는소리에 정협판도 방안에안졌다가 밧그로나아오며」

「무엇들을가지고 그러케들 닳도노라고 야단이야」

정남은부친의 바지를벗들고 한손으로히변을가르치며

「아바지 저괴져물우에 흰셔들이 잇지요 그것을어멈은 흰싸마귀라고도하고 갈가귀라고도히요 싸마귀에 흰것은업지요 응아바지」

「응저셔들말이나 그셔는두루미라하는셔란다」

「저셔가 두루미야요 아버지나는 두루미는쳐음보앗셔」

유묘논엽헤섯다가

「도련님 나 도앗가 두루미인가보다히지」

「얼스인제듯고셔 앓가는 흰싸마귀라드니」

「흐々々々」

경조는 히면을이윽히 바라보더니 다시남편을 도라보며

「여기는 티홍산성보다 경치가훌륭호데요 저! 괴보이는 섬갓치된것은 무엇인가요」

「응그것이 완도(莞島)라하는섬이오구려」

「하며 정남을나려다보며」

「이전에죄인을 귀양보낼데에 저런섬으로 보너엿는나라 아버지 귀양이무엇이야오」

「응귀양이라하는것이잇지 나라에죄들지는스름은 저런산속에다가 갓다두고 다시나오지 못하게하는것이 귀양이란다」

「여괴셔 저괴가아마퍼멀겅지오」

「여괴셔보이기는 그러히도 가려면 여려심리되는나라」

정옥조는 경조를도라보며 묘묘히보이는면산을 손으로가라치며

「더! 괴희미하게보이는산이 유명호 제쥬한나산(濟州漢拏山)줄기오」

「네! 그럼여기서는 한나산이다 보이네 나는하늘땀다는데 있는줄로 알엇더니.....」

정남은 물결이모라드러오며 바위에부딪치는것을 흥이 나서 보고섰더니
「아버지 더물이웨와서 더러케바위를 작고씨려요 바름이부러져서 그런가요 나는저런것은 처음보았셔요 우리송도잇슬씨네 그쪽포슈라하든물은 더러치
는안튼디」

「이물은 먼바다로동흔물이라 바름이부나안이부나 밤낮이러케 물결이심호고 요란하니라 더흥산성서 보든물은 산우에서 흘러떨러지는물이닛가 이바다물과는 다르지」

정남은더욱 신기이녀이여 바라보며

「응 아버지나는 이런것은처음보아요 그런디 더괴잇는비들은 무섭지안이호
가요 작구 물속으로풍덩드러갔다가는 나오고 또드러갔다는 나오고< > 하
니 이상은하지요 엇더케히서 그것케들어갔다가는 다시나옴가요」

정협관은 썰々우스며

「이런미련흔놈보았나 그게물속으로 들어간것이안이이라 물스결이 켜러나니
오히잇는물스결이 소소오르면 비는뒤에잇셔췌 보이지안이하는사슴으로물
속으로 들어가는것까지 아조물속으로 들어가는것이안이이다」

정남은 부친의말을듯고 그러이녀이고 점두하느디 열해섯던 유모는도로혀이
상히녀이여

「풍낭이저렷케 요란홀디 비가엿푸러지자안이호니가」

「암만여기서보기는 그러홀췌하여도 파도가 비를뒤엿게되지는 안이호다데」

「암만그리도 그비란사름들은 간이다슬겻습니다 여보도련님 저것좀보오 물
결에 비가넘어갈제네 비가아조 겨구로너러빅이논것까지오 아이고무셔워라
우리도련님갓흔니는 저런비는 무셔워서 당초에못타겻군」

정남은분연히 유모의손을탁치며

「아! 나가져사친비를 못타요 저버덤더큰비라도 탈터인디」

「아! 참우리도련님은 원악이장스라 무셔운것이무엇잇나」

데삼회

「아이고도련님 그것케다름박질만 하지말아요 이흔은어머니 썰아갈슈가잇
나」

하며 유모는숨이 턱에닿도록 다름질하여 정남을간신히붓들고

「아!도련님 어셔그만들어갑시다 달이압퐁줄도 모르고그리네 바다가에서
너무오리높고 안이들어온다고 마님께서 걱정하시겻소 이어멈셔져 췌중을
들너췌려고그리지

「걱정안이하셔요 약가 어머니 아버지 다 실전나가 놀라고 하셨는데 공연히 어멈은 그리히 그러면 나 혼주여괴셔 더 놀다 들어갈터이니 어멈은 먼저 들어가 구려」

그러면 혼주니 내려두고 들어와다고 걱정들으라고 글세그만들어 갖다 리일또 나와 놓시다 다리압흔줄도 모로지」

「나는 다리압흔지 안이하요 스내도 다리압흔가 녀편네나 다리가 압흔지 이새 짓것을 당겼다고 다리가 압하 아머어멈이 다리가 압흔것이지」

「그럼코말고 나는 녀편네나 새 다리가 더압흔지 그리고 어멈은 학실풍이라는 병이잇서조곰만올이당기면 무릅히압하셔 못견디요」

「학실풍이 무엇이야 그러면 다리가 압푸……」

「압히고 말고 뼈가 절이고 압푸다오」

「어멈그리 지금작고 뼈다귀가 압혀서 못견디겟소」

「지금도 작고 압푸지심하지는 안이하도」

「나는 그런줄 몰랐지 어멈아가니까 흥보았다고 성났소」

유모는 그말에 신통이녀이여 정남의얼굴을 도라다보고 우슈며

「어멈이 성을낼리가잇나 암만히도 녀편네는 약히셔 스니보다 다리가 더압 푸다오」

정남은 휘々도라보다니

「그럼어멈은 저괴저 산밧헤가셔 다리쉬고안져잇슈 나는어멈보이는여괴 서만 더놀려아니」

「그러면 도련님저괴연덕에 가셔잇슬터이니 멀리는가지말고 요근처에서 만 노오응 그리고물에는 드러가지말고 이모리우에서만 노라요 물스결이모 라드러오면 큰일날터아니」

「걱정말아요 요가장자리로단이면 물이여괴저지는 안드러온다오 니물에는 드러서지안코 저괴아히들 모혀셔노는데가셔 구경하고오리다」

한며 말을맛지못하여 정남은다름질하여 촌히들 모혀잇는곳으로 향하여간 다

그곳에는 열이삼세부터 칠팔세까지된 히변히오륙인이 얼골은모다 히풍에 곁어 구리빋갓치된 히들이모히여 조리와방계를 좁고잇더니 홀연정남이가 엽헤와셔 웃독셔는것을 보고여러히들이 모다정남의 얼골을치어다보고이상히녀이여 아리위를 홀터본다

정남은 서슴지안이하고 여러히들 엽헤잇는 바구니속을 드러다보니 그속에 는 방개와 조교마흔성션들이 드러잇는지라 정남은그것을보고 깃거하여

「이이들아 이것이무슨조키나」

함며 아히들에게 청다하무르나 히변아히들은 서로얼골만 바라보고 티답이업
거늘 정남은 적이 무료함야

「이이 이것나한아 주렴 너희들은 만히가졌스나」

역시 티답함은 아히는 한아도업는디 그무리중에 열이삼세되여 보이는 아히한
아히 정남의 뒤으로 가만히도라가서 손에 드렸던 큰방게한아를 정남의 저고리
고티속으로 집어너어 주며

「자! 가지고심거든 가지렴으나」

함며 물너셔는지라 정남은 잠작놀너여

「아이어머나!」

소리를지르며 급히등뒤로 손을너어 방게를집어너여 싸에더지고 우름이나으
려함는것을 어린마음으로도 슈치될가함여 여저로참으며 여러으히들을 다시
바라보니 그으히들은 손벽을치며

「아! 々々 지이운다 저것보아라 운다!」

함며 들네는지라 그중에도정남을 가업시아는 아히도업는것이 안이로티 그중
나히만은 으히의한잔난인고로 감히거역지못함고 한가지로정남을 놀니는지라
이와긋흔조롱은 정남이가 일죽이지너여 보지못함이라 지금것어지로 참았
던우름이 분홍모음에 일시에터져 소리쳐운다 으히우는소리에 홀연저편바위

틈으로부터 한으히가나오더니 이곳을향함여오는데 나히는심일이제나 되엿고
미목이 청슈호일기 미쇼년이라

데스 회

그으히는 압해갓가이일으려 정남의우는모양과 으히들의들네는것을 이윽히보
더니 그중나히 만은으히를 부르치며

「이이이놈아 네가이으히를 울렸지」

그아히는모로논체함고 도라셔서

「안이다나는모른다 니가웨그의를울너」

「그리도 네가여러으히들을 시겨서 울너노은게지」

「나는그런일업다」

「정말이나 네이놈엇의보즈」

함며 그아히는 정남의등을 어르만지며

「이이우지마라 누가너를 그리디 저괴섯는 키커다란서년척이지」

정남은 눈물을써스며 그아히의얼골을 쳐어다보며 고기를쓰덕이니

「그러치 저놈이그리스지 네티신내저놈을 실컨척려주마 누가네게마저 네게
엇어마질 몸동아리가 싸로잇더나 우슈운놈도다보겠네」

함며 정남을울니던아히는 압셔셔다라나미 다른여러아히들도 쫓쳐서 사방으

로 하여 지는 지라

그 아히는 여러 아히들 다라는 양을 보며

「아— 못된 아히놈들이로군 그 아히들에게 네가 마졌니」

정남은 눈을 비비며

「안이야 그런 것이 안이라 저 괴바구니 속에 도끼들이 많이 있기에 나하는 달고
고깃더니 내 등 어리에다가 너 엮서」

「아— 저런 못된 놈들이 어티 잇담 감안이 있거라 내가 다 그놈들을 만는 거든
실권 두다려 주겠다 이런 게 네가 지고 심히서 그리히니 잇가 짓것은 여기 암
만이라도 잇다 잇다가 내 만이 잡아 주마 그러나 너에 집은 어디게 여기 왔니
아서 올서 온 게로구나 너의 집은 서울이지」

응

「그러면 언제 여기를 나려왔니 어디서 자니」

「나논 어적게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고 우리 어머니 하고 또 우리 어멈하고 네시
함께 와서 그리저과 보이는 집에 잇네 그 집에서 우리가 모두 지고 잇단다」

「응 그러니 저 괴양신관에 와서 잇구나 그리니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 하고 다
계시나 여기도 함씩 오구」

「너도 어머니 아버지가 잇지」

그 아히는 가장 비창한 괴색으로

「나논 어머니도 업고 아버지도 업고 단지 젖어머니 한 아뿐이란다」

「젖어머니가 무엇이냐」

「나를 젖먹여서 길러 준 사람이 젖어머니지」

「응 그러면 다도라가 셤니」

「안이다라가 셤것도 안인데 네가 언제 더커서 어른이 되여야 만나 본단다」

정남은 이상하여 호는 모양으로

「나논 그런 소리 처음 들었다 나논 날 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데 너는 왜
그러나 어른이 되어야만 보나」

그 아히는 다시 대답지 안코 히안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조이리 오너라 내 방에 만이 잡아 주마」

두 아히는 정다히 손을 서로 잇살고 나아가며

「너의 집은 전부터 여과나 응 우리 집은 여기 잇셔도 낫기는 서울서 낫단다 그
리나도 여과서 쇼학교만 졸업하면 서울로 공부하려 갈터 이란다 그러나 너는
엇지히서 여과를 왔나 오리어과 잇슬터 이나」

「나논 요전에 송도가서 잇다가 병이나서 펴오리 알엇는데 의원이 이리로 파
접을 가라고히서 왔는데 우리 어머니도 일상 편치 못하시닛가 다 낫기시지는

여기 잇슬터이란다」

「아 그러면 너 서울을나가기전까지는 우리가 이러케 놀겠구나」
「암그러치」

한며 두아희가 서로손을뿔고 희희낙락하며 나아가는디 길스가모리우에 소
라갓흔것이 조고만흔것이 조고마흔돌에 붙어잇는지라 정남은이것을 드러다
보며

「이이 이것이무엇이나 이케소라안이나 정당거먹는 소라안이나 소라가무엇
이나 그것이여기말로 물망아지라노것이란다」

「응물망아지 똑소라갓구나 이케죽은것이지」

「안이다 살았다 그것을물에다 집어넣코 등어리를 썩누르면 식거면물을 토
흐단다」

「그러면 정말그런가 안그러면 한번히보쇼」

한며 나무가지를썩거 물에집어너흔후 나무가지로 그위를누르미 과연검은물
이나오며 물이모다 거문빚시 되는지라 정남은 그모양을보고 신기히역기여

「아 정말그러구나 그것조미있다 내집에가셔 어머니더러 리악이를히야지
물망아지가 이런것신줄을 다른사람은 다모로지 그식짓것시 그럿케신통하
야 그것보다 더우운것시잇지 여울쭈머니라노것이 잇단다」

「여울쭈머니 별일흥이 다잇구나 그것은 잇디케싱겼니 나노이런바다가
쳐음이니쇼야모것도몰은다」

「여울쭈머니라노것은 바회우에 펴만나뵈터잇셔요 올치〈저기있다 저것
보아라물속에서 입을썩버리고잇지」

「응 이것시여울쭈머니야 아이구 슈염이 기다랗케낫구나 슈염을썩질〈
하네」

「입을나무로썩썰너보아라자—그만썩드러가지」

「참그것우습다 건피리잇가 그기다랗튼슈염이모다입셔지느구나 별고기도다
잇네 더디는방게가 쏘우물〈하느구나」

데오회

두소년은 손목을익글고「자미스려이리악이흥며 해변으로향흥며 나아가는디
바다물가으로부터 두스름에어부가 한스름은그물을두루쳐메고 또한스름으로
를억기에 연메고오더니 정남과흔가지로 가는아희를보고

「이이옥남야 엇지여기나왔니 방게쭈으러나왔구나」

그아히는 헛긋치여다보더니 웃는얼굴을지으며

「식말아жат씨인제드러오시오 오날은고기만히잡으섯셔요」

「오—그놈말하노것하고똑똑도하다」

「호며 홀연정남을바라보더니 다시그아히얼굴을 바라보기를참참하다가 한가지로오는 한어부들도라보며」

「아여보게 원달이저아히얼굴좀보게 똑옥남이갓지안은가」

「글세참생동이얼굴갓하이그려 옥남이일가으히인게지 암만보아도 시골아히갓지안이후디 얼굴이분결갓흔아히」

「이옥남아저아히는 너의집일가아히야」

「옥남이라일커르른아히는 그어부두사름에말을 이상히역이여 정남의얼굴을 들여다보며」

「안이요일가집아히는안이야요 그런티이이호고」

「내얼굴호고 정말갓해요」

「아갓고말고 한판에빅인얼굴갓다 네일가족속도안이라면서 엇지알아서그다 지정답게놀고단이니」

「그런게아니라요 더티갑이란놈이 지금이익를 작고놀여주어서 올고잇길내내가그놈을쫓차바리고이익를달내노라고 지금여괴서지왔는디 오늘이야처음 천히셔요」

어부두사름은 서로얼굴을치어다보며

「아참남씨리얼굴도몹시도갓다」 호기로 그러케지독하게 갓흔아희들은

처음보았네 여보게 누가보기로형제라고호지안겠나」

「참이상호일도잇네 어서가세느저가네 이이옥남아 오늘밤에놀너오니라응」

호며 두번세번도라다보며 어부들은촌을향하야잔다

어부들의 말호고서니잔후 그아히는정남에얼굴을 이윽히드려다보며

「니고나고정말얼굴이갓흔가 모로갓다내얼굴이 정말네얼굴갓해스면도케다」

「나도얼굴이 너갓히스면도케다」

큰아해는 좌우로도라다보니

「이이 더괴 물웅덩이가잇스니 우리그리가서 얼굴을빚추어보자」

「참우라그러케호자」

호며 두아히는 손목북들고 바다물이드러와서 웅덩이에 모여잇는곳에 일으려 두억지를 나라니되이고 고기를숙이며 물거울을향호고 드러다본다

밝은물에 빚추이는 두아히의 어엿분얼굴을보건디 처음에 어부두스름이 놀나든바와갓치 정남의얼굴과 그아희의얼굴이 흡사히갓흔지라 그어글々々흔눈 모양이며 옷두흔코날이며 어엿분입립시는 한판에빅이였다할썬안이라 우실씨에얼굴까지 천연호모양이라 다만호아히는 해변스람으로해풍에글러고한아희는 서울성장으로 서울물에씨기여 희고검은것이 다를썬이오런연력으로아름다운바탕은 해변여러아희 모인중에라도 뛰어나서 돌무리속에 봉황이셔김

과갓더라

두 아희는 아즉 철모르는 마음이라 저의 두 사람의 얼굴이 과연 갓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지 못하되 다만 빗췌어 보면 얼굴을 들어 서로 바라보고 빙그럼이 우슈며 갓거운 빛을 얼굴에 나타나인다

「정말 우리 얼굴이 똑갓구나」

하고 우송을 씌우며 큰 아희는 정남을 도라보며 정남은

「나는 물결들여 다보아도 정말 갓흔지 모로갓더라 맛은 네 얼굴이 똑 우리 어머니 얼굴 갓갓해 아가도 네 얼굴을 보고 우리 어머니 갓다 갓히셔」

그 아희는 홀연 눈에 광채가 보이며

「정말이나」

「아이 저갓보아라 눈을 그렇게 동그렇게 뜨니 어머니 얼굴 갓고 정말 갓다」
그 아희는 더욱 심사를 정치 못하며

「나도 너의 어머니 좀 보았스면」

「우리 어머니 보려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올너무나 그랬치안어도 우리 어머니는 각금 이리로 운동나 오시니 저 그런척 보면요 처 우리 어머니더러 네 리약이름 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잊더께 귀야 하는 데 너도 보시면 꼭 귀야 하신다 그 아희는 가장 반가워하며」

누

옥

쌍

누

옥

쌍

정남은 그 아희를 치여다 보며

「그럼 유모가 있구나 나도 유모가 있단다 여긔서지 함께 나왔지만 다리가 압푸다고 저산 밋혀서 쉬이고 있단다」

「어디」

「저기 보이 지안이하네 산 밋히 하얏케 조고 마흔스름이 보이지안니 그게 우리 유모란다」

옥남이는 가장 부러워하는 모양으로

「나는 너의 어머니 외에 또 유모가 다 있구나 그려」

정남은 그 아희를 심히 위로하는 과식으로

「네가 정말 우리 형님 갓흐면 도출겔 그리다 나는 형님도 업고 아오도 업고 정말 놀사름이 업서서 심심해요」

하고 한탄하는 모양을 그 아희는 물그림이 보더니

「그런치만 남스씩리 잊더께 형제가 되니 그리고 너는 얼마 아니 있다가 서울로

데 류 회

가면 다시는 만나 보지 못하겠지」

「나는 그럭도 이런 것이 재미있스니까 아조여끼서 살라 네 마음은 암만 그러해도 너의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을 할 실리가 있네 아모색던지 한번 작별할 날은 있슬터이니 우리가 갖치여끼릿슬씩지만 형데 갖치놓고 지내자 그런디 참네 일홈이 무엇이냐고 하엿네」

「응 내일홈은 정남이란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베슬이전에 대신서 지킴단다」

「그럼 서울저상의 아들이로구나 나는 사과구석에잇는 상놈인디 나고 갖치노라도 관개치안케니」

「아니 별소리를 다 하노구나 갖치아니 노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디 네일홈은 육남이라지」

「응 내일홈은 육남이라고 하단다」

「육남이 々々 일홈도 엇지 우습구나」

「우슈어 시골사람의 일홈이 되여서 우슈운 것이지 우리저쪽으로가자 저기잇는 도리들 내쥬어다쥬라」

「만이 좀 쥬어다고」

「응며 정남은 악가부터 쥬흔조리를 슈건에싸서 촌에들고」

「네가 오날쥬어 좀 조리 갖흔것은 어제는 흉나도 못보앗서 집에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자랑을 해야지 오날은 산호가지를 다잇고 우리 어머니도 보시면 펴도와 하실테다」

「굿가진것을 그리니 우리집에는 두조기라나되논 산호가지가잇는데 너일것다가나쥬마」

정남은 눈을뚱그럭케뜨고

「그럭케 큰거슬네가 가졌네」

「암가지고말고 정말 산호가진지는 몰나도 물속에고기잡으러 드러가는사람의 말을드르면 그런 산호가지가 바다밋바회우에나 무처럼나서잇터」

「응 그것한번보앗스면 우리 갖흔어린이는 그런바회를 가셔못보나」

「아히들은 가보지못한다 그 산호가지는 김흔바다속에를 가야잇지 물밖에는 업는것이란다」

「그럼 어른들은 엇더케물속에를 드러가니 죽지안나 죽고논왜죽어 여괴스름들은 그거시모도 너편네들에 버리닛가 겨울여름할것업시 발가벗고 물속에썩여드러가서 미역도싸고 싱복도싸고히가지고 물밖그로나오는것보면 참 재미잇단다」

「그리여편네들이 그럭케 물속에를 드러가 요시도그럭케하네」

「암하고 말고 더——산밧해서도 지금잡고있다 우리가서 구경할가」
정남은 깃거워 두발노정들々々하며

「나 구경좀식혀다고 나는서울서 이런구경은 할지못했다 아모소리안이하고
멀니가면 우리어머니 또 차져다니노라고 이를쓰게」

「그럼 이다음에 우리가서 구경할자」

두아히는 손을잇살고 리약나하며 서서히나아가는디 정남은 바다가운디웃듯
하게 소사나와잇는 큰 바회를보느니

「이이 그 바회는 펴도크다 그 바회우에 한번을나안져 보앗스면 도케다」

「저 바회말이야 그 바회일흔이 투구바회란다 투구갓치성기지안니했니 지
금은 물이드러잇스잇가 그러치 이물이짜지면 여괴셔 바외잇는디새지 그러
셔도 드러잔다 물이갓짜진후 거이드러가보면 바위스이에 별고기가다잇지」

「거기한번 가 보아스면 언제던지 물이짜지거던 한번가서 구경할자」

「그리두 그 바회는물이 드러올썩에는 산성이갓흔물결이 드러와셔 별약갓
치부디치넛스 잘못할면 큰일난다 언제던지 일기도흔날 한번가서 잠간구경
할고오자」

데 철 회

「정남이 인제야오니 나는아쥬 집을이러바린줄아라구나 무얼그렇게 한번에

서 오리놀고잇섯니」

총々이다름질하여 드러오는 정남의뒤에는 유모가 뒤쫓차드러온다

「마님 인제옵니다 앓다 도련님이 집에올줄도 아지못하고 작난에골몰하는
것슬 잔신이다리고왔습니다」

정남은 유모의얼굴을 도라다보며

「앗다 어멈은 입티지잔되밧해서 안져만잇다가와셔는……………」

「어멈은 다리가병이났스니서 그러치」

정남은 우슴을먹음으며

「오나 정남이가 저미붓치는것잇셔노니 네마음니 대단이도타 아못조룩속히
소복할여가지고 서울집으로 을나가주나모양으로 일성병치레만히셔야 무
엇세쓰겟니」

「어머니 나는여괴셔 아쥬살아스면 도케셔요 도흔등무도잇스잇가」

「이이 이촌아히들하고 너무셔겨다니지말아 못된것만 비오기쉽다」

「그리도 어머니 옥남이란아히는 여괴시굴 아히들갓치아니히요」

우모는 정남이슈건에싸셔들고 잇는거슬가라치며

「여보 도련님어머니보시게 쥬어가지고온도키덜이나 좀녀노쿠려 나도 좀
볼시다」

정남은 아리웃간방을 좌우로돌너보더니

「아바지는 어디로가셨나 그런디 어머니 오늘날은 엿더케 구경을 잘하였는지 물어 나요 도리도 별것이만이잇고 고기도 별것이만이오 그리고 너일은 우리동모 옥남이라네이가 조흔산호가지를갓다주마고 그리셨요」

「너는 밤낮동모 소소하니 동모가 엿던아하니」

함며 경주는 다시유모를 향하야

「여보게 이기어멈 이의와갓치놀아자는 옥남이란아히를 즈네도보았나」

「내저는 다리가압퍼셔 도련님하고 갓치다니지못하고 삼밧해가셔안젼더니 도련님은 혼조아히들름으로 가셔놀다가 동모를하나 장만흔모양이올시다마는저는 자세히못보았셔요 지금도련님하고 올씨에 먼말치로잠잔보닛가 나히들갓치는 아니히요 그런디마님 도련님은 그아히얼굴이 똑도련님하고갓다고 그의갓흔형님이 한아잇스면 도릿다고길에서오면셔도 노—그말뿐이오」

정남은 모친을치어다보며

「어머니 정말히얼굴하고갓히요」

경주는 얼굴에 이상흔그림즈가났타나며

「그것은 어머니비사름들이 지니가다가 나흔고옥남이흔구 보던이너희들은 얼굴이한판에 빙여넛것갓다고 형제나고그리오 그리셔 우리가얼굴을 물에다가빚추어보았더니 정말똑갓흔것갓히오」

유모는우스며

「앗다도련님은 의스도도치 물에다가 빚추어얼굴볼줄은 엿지알앗스가

그런데 나흔보아도 즈세알슈업는디 그옥남의얼굴이 우리어머니얼굴하고는 똑갓히요」

경주는 그말에홀연 가슴이올니며 고이흐염여가이러나 소 감히히 스식을났타나이지안이호고

「이세상 억조창성중에갓흔스름이오작만것니그이부모논비스공이라디」

「아이고마님멀니셔보았셔도 모양이 이곳아히들갓치 상스럽지는안이히오」

정남은모친에무릅을흔들며

「어머니 그옥남이논 시골아히가아니리오 저의어머니아바지는업티오 여괴셔는 저의젼어머니호고만 산다는디 그이가커다랗게자라셔 어른이되지안이호면 아바지어머니를 맞나보지못흔티오 어머니 엿지셔그러오 나는무슨셔들인지모로갓셔오」

경주는안광이 홀연빚나며 김히흐숨짓는다

「어머나々々々 옥남이논엇지 놀기가요흔지 몰나오 다른아희들이 모도와셔 나를놀여쥬어셔 나는올엇지오그런디 옥남이가와셔 그아희들을쫓츠마리고 종일나하고갓치노랏셔오 나는옥남이가흔언이훈아잇스면 어머니도똥젓지오 옥남이도 우리어머니흔번보앗스면죃케다교」

경조는다시흐숨지으며

그리너의들을보구셔 지니가든사름이 얼굴이갓다교 하드란말이지

「응보논사름마다그리오」

「옥남이논그아희일홈이나」

「응일홈이 옥남이야오」

데 팔 회

석양에 넘어가논히는 발셔유달산(儒達山)봉오리넘어로 썰러지려논디 쪼각구름스이로써여나오는 남아지빔은 다시히면의잔잔물결을 쳐석하여노흔듯져 녀히빔을안고 도라오는듯단빔은 완연이그림과 다름이업더라 원근에연하여잇논 올을호산과 봉오리는 점점몽롱하야연과중에 싸인것갓흐며 물여드러와셔 언덕에부딕치는 물스결소리도 이날은희한이고요하야 이존것을별안간에 싱각흐다시 썰썰로물여와셔 바위에부딕치는물결소리에 고기를비르리고 한가이도 올든 비구의섬을돌녀여 활활날아가는것도 한경치라 뒤에잇는조고마흔산밋헤

논어느틈에 전역연과가일어나고 너머가논히는 소나무가지뺏헤결이여 잇스니 적막하고 흐정한어촌경치는 진실노사름의 회포를도웁더라

이씨에히변경치를 완상하며 서서이거름하야 비회하는사름은 정옥조의일행이니 그부인과아들을다리고 이곳에산보홈이라 정남은 그부친을티하야 전일옥남에게들은바 물망아지와 여을쥬며니 리약이며 방게잡논리약이를흔논디 정옥조는 다시자서히 설명하야 들녀준다 경조는 말업시남편의뒤를 좃차오며조기와방게등속을쥬으며 나아가논디 일행삼인은 얼마아나하야 한바외압해다다러터라 정남은 별안간에 웃뚝서며

「아바지 저 바외가 투구바외라하는것이아오 나는 그바외가 그중조와」

「올치그바외가 정말투구모양갓치 싱기엿구나」

「아바지나는 저바위우에 돌을나가보앗스면 좃게셔요 거괴올나가셔보면 별구경이 다만이잇티요 이물이다빠지는썰는 저바위까지 거러셔라도 올나간다는디 전에 아바지여과당기실제 저바위에올나가보섯겟지오」

「안이 나는 올나가셔본일업다」

「아바지 언제물이다 업셔지거던 나고한번갓치가셔 구경히요 응 아바지」

「응 그리하자」

이씨에 맛참물녀드러오는물결이 땡호가입을버리고 집어먹을듯시 달여드논것

갓치 그바외를물스결이 뒤엎히물속에 파묻치는지라 경조는이모양을보고 홀연몸소소리를치며

「아이고 이이 정남아 아예저바회에는 올라가지말아 너도지금보았지 물덩어리가 그 바위를뒤엎는구나 만일그런썩에 사람이잇스면 함께쓸여드러가지안이하겠네 아예 그런작란은하지마라 영감게셔도 못하게하시오」

「어머나는 아지도못하고 그리하시네 지금은 물이작고드러오니까 그러하지 오이물이다물너나가면 관계치안어오」

정옥조는 정남의편을들어

「지금보기에는 한창물이미는썩이닛사 그러케위티할여 보이지만은 물이싸지면 그썩은조금도위티할것업지요 이이정남아 네가정이 저바외위에를올나가고저할지경이면 언제던지 물새진후에 내가다리고 올라가서 구경시켜주마」

정남은 심히깃거호며

「그럼 아버지썩 구경시켜주어오」

「응 그러라」

경조는 오히려 녀려를듯치못하고

「아이여보시오 영감나는 정남이가 너무도 바위위에 올라가려고만하닛간

암하도 염려가됩니다그려 만일썩되잘못히셔 별안간에드러오는 물결에싸이여셔 드러가면 큰일나지안이하겠습닛가 영감이 올라가지 못하게하시지는 아니하시구셔」

정옥조는 미소호며

「그닥지 녀려할것은업소 오히들은 너무위히셔만 길드면 아히들이 도로혀라악히져셔 못쓰는법이웁다 그도만일바름이심하고 물결이몹시 썩높는날이면 모로겟스되 고요한날에야 조금이나 무슨녀려가잇슬리가닛소 그리고너가 다리고올나갈테이닛가 아무녀려업소」

경조는다시정남을향호야

「정남아이후에 저바위위에 올라가려거든 아버지썩말씀하고아버지하고함께올나가지 형여혼조는가지마라응」

「예」

정옥조는바다를향호고 유연이셔셔 멀리히중을바라보니 놀랐다나젓다호는물결이조움작이며 언덕에부딪치는 물소리는짐짓사들의마음을웅장케한다보기를이유히호더니

「참경치는 더말할슈업소 지금다가한참본즉 과연상쾌호고 웅장호여셔 사름의미약한마음도 능히흥괴를식일듯호구려 그러치안소」

경조도한가지로 물결치는것을바라보고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잊지 그러한지 무섭기만하요 더해보시구려 짐
것것흔들렁어리가 더니 바위와 바위틈으로 물너드러올제는 서서오른것
갓다 다시속으로 속드러가는것것갓다 물결품이이러날제는 그 깊은속에
무슴것이 잠기여있는것갓하요 그런것이 나눈공연히 무서워요 그리고물결
이 출렁거리며 살달듯하는것을보면 너몸서지도 스을너드러가는것갓하요」

데 구 회

정옥조는 허우스며

「올은말이오 나도엇전지 두려운마음이 안나는것은안이오 이러케흔참 너여
다보고잇스면 무슨형용업는물건이 그속에은복(隱伏)하야 잇는것것고 또는
두려운마음이 조연성기는것은 이른바고상(高尚)한 관념(觀念)이 일로쫓차
이러나는법이니 가량말하면 적막한심산궁곡에 홀로드러가서섯던자 푸르고
검은 깊은소의에림하면 그곳에는 무슨형용키어려운 무서운물건이잠복(潛
伏)하여 잇는듯이 마음이되는것은 사름마다 다잇는마음인디 그엇던흔물건
이라하는것이 사름의마음속에잇는지 텨지조연(天地自然)에 잇는지 그는용
히이히석하키어려우나 엇더하든지간에 산중에 홀로가서잇던지 큰바다의
탁랑로도(濁浪想濤)를보든지하야 마암속으로 이상한관념이 이러날제에는

텨지조연과 조기의마음이 눈에보이지안이하는일로 연결(連結)하여노은
것것흔들렁안나는것은 사름마다 그러한것이라 지금부인의말이 몸이물에스을
여드러가는것갓다 하는것도 즉 텨지에조연과 부인의마음이 서로연결이되
는사름이오 그런고로 만일조기의허물이 잇는사름이 이경우를당하면 그지
은허물을 심히두려워하는 마암이성기니 텨지의조연이라하는것은 사름의정
신상(精神上)에 비상한감화(感化)를주는법이오 명산(名山)이인결(人傑)을
낳는다 현지의조연(自然)은 인심(人心)을감화시키는 교회사(敎誨師)라하
는것이 다이러한이치에서 나오는것이오」

경조는 고기를숙이고 남편의말을 귀를기울여듯다가 다시고기를돌림이업더라
부친과 모친이 투구바회압해서서 리약이하고 잇슬등안에 정남은 홀로압할향
하야 나아간다 저편물가에논 고기잡이비가 드러와서 고기를난호는지 고기두
서너마리를 바꾸니에어더들고 해변으로쫓차 촌가를향하여가는 사십여세된로
파하나와 십여세된아이가있다
정남은 말서 그아히를보더니

「오—옥남이야」

그아히는 일은티답하며 정남에게로 향하여오려다가 다시그로파를 도라다보
며

생

「어머니 저의가 앓가 내말하던 그아히오」
 「로파는 눈을웃조락으로써스며」
 「응네얼골하고 갓다하던아히가 저아히나 네얼골과갓다니 넉마음도 엇지 반가운지 모로갓다」
 이리말할스이에 정남은 다름질을하여 말서 이곳에일을러더라 옥남이논 반가

옥

이며
 「너논히가저무러가논티 혼조여괴지나와셔 놀고있니」
 「안이 아바지하고 어머니하고 모도함씩 왔단다」
 이말을듯더니 옥남의얼골에 이상흔괴운이보이며

누

「그러면 너의어머니도 여괴나오셨니 어퇴게시냐」
 「저괴안이냐 저바외압헤 두리셔있지」

「응정말저괴 두리섯는사름이나 네가불가나는 너의아바지하고 어머니하고 좀보앗스면 좇헛들아 제일너의어머니 좀보앗스면」

옥남은 가장열심으로 말하나다

「그럼 나고함씩가자 우리어머니한테 다려다줄터이니」

「그렷치만 나는 붓그러워서 엇더케가니」 그리도 우리가보즈」

하며 두손을잡고 다름질하며 그곳을향하려할지음에 뒤에서서있던로파는 옥남

을부른다

「이이옥남아 감안이잇거라」

옥남은 부르는소리에 몸을도로키나 정남도몸을도로켜그로파의 얼골을치어다 보며

「이이 이이가 너의젓어머니냐」

그로파는 나죽할말로 덩당이

「네가 이옥남이 젓어머닐세」

하며눈을씻고 정남의얼골을 자제자제들여다보더니 한숨을 길게자이며

「긋기도하다 엇지면 이렷케 얼골이긋흔가 형데가안이고야 이렷케긋출슈가 있나」

하며 입속으로하는말을 옥남이가듯고

「자—우리젓어머니도 보구셔갓다고하느구나」

정남이도 신이나서

「할멈이보아도 우리얼골이긋지」

「긋고말고 그렷케긋출슈가있나 한관에빅여넌인것긋치 아이고세상에도」

하며 츄탄하기를 마지안이하고 정실업서 두아히의얼골을 번가라보며 들여 다보다가 손에들엇던 고기스바구니를 싸에떠러친다

생

옥

누

「여보할멈 바구니가 썩러졌소」

할며 정남과 육남이가 그바구니를 집으려할썩에 그로파는 비로소 잠잠성각을 하고 바구니를싸에서 집는다

「어머니 웨그리오 무슨일이잇소 더이하고 저기가보아도 관제처안소」

육남이는 말하기를맞치지못하야 다름질로 그편을향하여 다라난다

「지이가 더그는웨잔다고 그리홀가 시골구석에서 잘아나서 누구에게변변이
되답도홀줄모르는 위인이」

뒤에썩러졌던 정남이는 육남을쫓추싸라잔다 그로파는 두소년의가는 모양을 망연이서서 보고잇더라

데 십 회

그로파는 두소년의가는 모양을 물그럼이 바라보고서서 입속의말로

「그아희더러 저서아좀말이나 물어보려고히터니 벌서가버렸구나 정말형데 나안지 모로갯구면 천향제가안이고야 열골이 그럿케갯홀슈가잇나 열흔히전일이니씩 나도저서이는 괴역홀슈는 업셔도 그아희어머니라는 사람을 내가한번만보앗스면 열골은짐작홀터인티 그떡드르닛가 열홀이경즈라고호든가호엿는디 그아희어머니가 정말우리육남이 어머니가보다 정말그러호면 작히나 도호리만은」

「철모로는 육남이는 저의부모의 열골도모로고 이식골구석에서 자라나니아 모리히괴홀 이세상이기로 지금은아죽 철을모로닛가 아모성각이 업것지만 은 초초심이나면 부모한탄을 오작히나홀나구 이런불상흔 아히도잇는디 저으히는 저의어머니아버지틈에서 금이오 육이오호고 귀염을받고지상가 자제로남이다차어다불레이니 한미스속에서 나은형제도 팔자가각각이로구나 저아희어머니가 정말육남이나은어머니일디경이면 엇더케히서지금은 지상가부인이도엿는지 몸이잘되엿스나씩 이전죽식은 당초에성각도 안이호는것시지 그성각을호면 더미워져못견디벤네 아모리쳐음부터 왕리를썩코 소식시지 통치아나호기로 약조은호엿지만은 조금이라도 인정이잇는 사람이면 조식사랑에 쓸녀서라도 엇더케던지 남모로게 소식이라도전호련만은 십여년이되도록 소식호변이 업단말인가... 다시말홀것무엇잇나 갓나은조식을제손으로 죽이려고시지호던 아귀갓흔 여편네니싸 육남이성각은 발셔이저바려슬터이지... 내가 그경즈라고호는이를 한번만보앗스면 가슴이시원호도록원망을호여쥬련만은 어머니되는 사람은 그럿케무정호여도 육남이는그미정스러운 어머니를 그리도쥬야로성각을호니 잔익히셔 그모양은차마 사람의 눈으로 불슈가업지 오날도 그이어머니가 제열골호갓단말을 그이에게 들엇다고 신명이 다가라쳐쥬시는지 그말드른후부터는 그리어머니를한

번만보았스면 토젼다고 토부비듯하니 그런불상흔 니 주석의 마음을 아지도 못하교……정말엇지면 사람의인정이 그러하교……엇더런지 니한번가셔 면발치로라도 잠잔보고 오겟다」

한며 옥남의유모는 두아히가 가는곳으로 뒤쫓쳐 서서히거려잔다

옥남과정남은 정옥조의부부가 서서잇는곳에서 룡철잔동안이나 격호곳에 이르러

「더것보아라 더것안이야 우리어머니가보이지」

옥남이는 멀리경조를바라보며

「엇의보이니 고기를굽흐리고 게시닛가 얼골이 엇의보이니」

「그럼 더갓가히가셔 보자」

「나는 붓그러워 엇더케가나」

「관개치안타 어셔가즈」

한며 정남이는 옥남의손을 잇글고압호로 갓가히나아가니 정옥조는 허변경치를 바라보고섰다가오히들 다라오는발자취에 고기를들리며 두아히를보니 옥남이얼른고기를숙이여 공손히 정옥조의 부스를 향하며례한다

정옥조는 옥남의얼골을보고 니렴에이근쳐 허변아히로는 희귀한 소년이라하며즈기도고기를 쓰덕이며 답례하교 다시옥남의 얼골을바라보더니 홀연한번

놀뛰이지안이치못할네라

보건티 이아히는 허변가에 보통아히와다르고 청슈한미목은 서로나라니서서 잇는 정남의얼골과 심히갓다다 신기한일에 놀내이기를 마지안이하던 정옥조는 혼조말로

「참이상한일이다 정남하교 얼골째쏘앗구나 정남이보다 저의어머니얼골과 더갓다그아히넉집조식인지 잘—싱겟다」

남편엽헤셔々 잇던경조는 옥남의 얼골을유심히보더니 점점얼골이변하여파랗게질이며 그눈에두려워 혼조괴석이 나타난다

「네보이것참 이상한일도 다잇구려」

한며 정옥조는 경조의얼골을 도라다볼썩에 십일년만에 만나보는 모조두사람의눈은 서로바라보는안광이 사람의눈에 보이지안이하나 실노삿을이은것갓치한참동안을 두사람이 정신업시바라본다

데십일회

철모로는 정남은 서서잇는모친의 차마압헤와셔안기며

「어머니저의가 옥남이라오 악가다가이악이헛지오 어머니도 보고심다고헛지 지금지괴셔 맛참맛났길에 내가다리고왔지 저괴저의 젖어머니하교 못치잇습디다

경조는 대답도 하지 않고 목우인 것처럼 서 있다 정옥조는 옥남의 압력으로 갖가지

나아가며 「네일홈이 무엇이냐」

옥남이는 북그러운 마음을 억제하고 정옥조를 치여다 보며

「옥남이의오」

「성은 무엇이니」

「성은 서가의오」

「서옥남이 응그러면 네집이 본리 여귀더냐…………서울서 혹시 락향을 핏
나나」

「본리 여귀의오 그러도 여귀서 학교를 졸업하면 서울로 또 학교에 드러갈터의
오」

그러면 지금은 쇼학교에 당기니 그리 학교에 당기기가 요흔야

「네 나느글리가가 펴도와 요 학교선생님이 우리집에 와서 깨신데오」

「응나하느지금몇살이니 너의 부모 다 깨서고 너의집에서느무엇을하느 농사를
하느…………」

「올에 열한살이의오 나느 아버지도업고 어머니도업고 집은 우리젼어머니
집이의오」

정옥조는 점점이상이여기여

「허허그러면 외로운몸이로구나 가엾은일이다」

정남은 부친의 압력으로 다시 나아가

「아버지 그러도 저의젼어머니가 펴귀의후터 아버지두 어머니두 모도업서두
젼어머니가 귀의후터가 조금도설지안라고 그러도네가 우리어머니 아버지
하구 흠씩왔다고히터니 그말을듯고는 저의가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나서울
어다고히오 그러니 아버지 젼터니가 아히들한테 마져서니가우니씨 지의가
와서 그아히들을 모도쫓쳐주고 그써부터 나구동무가되얏셔오」

「응그러서」

하며 정옥조는 경조를 따라다 보며

「그아히 조금잘살것소 열한살도느 숙성도하고 못느말도 대답이뚝뚝하고 영
민히보이는것이 이식골서성장하느 아히라고느 흠슈업느겜 첫지괴상이도
와보이닛싸 이히변어부의즈식은 아난가보오 다만그아히얼골이 부인과 정
남의얼골하고 갓흔것시 이상흔일이지…………」

「엇더튼지 정남이느도흔 친구하얏어소 모르는사람은 형데로알기쉽겜소……
……허々…………」

경조는 더욱／＼요란한 가슴을진정하며

「정말 참그렸습니다」

경조는 다시 눈을 숨기며 옥남의 얼굴을 바라보니 옥남도 역시 경조를 향하여 바라보는 눈과 서로 마주쳤는지라 경조는 잠썩 놀래며 다시 싸를 향하고 고기를 속이인다

히는 발서 황혼에 이르러 촌의 인가마다 전역 연기가 처처에 동릉하여 갓가히잇는 사람들이 안이면 얼굴도 자세히 알기 어렵더라

이때에 옥남의 뒤쫓아서 서히거려오는 옥남의 유모를 정남은 말서알아보고

「이이 옥남아 너의 젖어머니온다」

「엇의 참말 어머니……」

함여 옥남은 고기를 돌리며 볼썩에

「이이 옥남아 여피와서 무엇을 하고있니 어서가자」

함여 그로파는 정옥조를 향하여 인스하고

「이것은 식골죽식이 되여서 아모것도 모르고 미거만 합니다 어른압헤와서 잘못한 일이나 업서는지요」

함여 눈을 드러 가만히 경조의 얼굴을 바라다본다 정옥조는 그로파를 향하여

「여보게 이스름즈네가 이아히 어머니 되느사름인가」

「예그렸습니다 데가나온죽식은 안이옴고 젖먹여길너준 사름이올시다 말씀

듯조잇가 영감마님씩서는 서울서 내려오셨답지요 엇더케이러케 먼식골구

석에를 오세수가요 촌구석이라 잡슈실것도 변변치못할일이오 아이고도련

님은 잘도성겼습니다 어엿부기도하지 그저이미거흐 옥남이하고 날마다정답

게노는 모양이와요」

함고말하면서 도엿눈으로 경조의 얼굴을 조로바라본다

아모 리히모르는 정옥조는 우슴을먹음고 슈염을쓰다듬으며

「지금도우리가 이놈의조흔친구가성겼다고 이야이를하얏네 우리가여기잇술 동안에는 날마다옥남이를 놀너보너주게 우리논요념어 양신관이라는 주막

에류하니 즈네가 그아히를 아마잘가라친게네 어린아히지만은 엇지영민호

지모로겻데그려」

그로파는붓그러는 모양을지으며

「천만에말씀이올시다 엇지그럴슈가잇습닛가 그러오나 이아히를아모리저 의천부모는 니바린죽식으로알고 한번도찾지를 안이하지요만은」

함여 흘연비창하여 두눈에눈물이돌더니 다시말한다

「이늬는것시 이아히하나는 무슨짓을하던지 잘가라쳐서 사름을만들여고함 니다그저식골것이라 무엇을아라야합지요」

「그러면즈네가 전에는 서울도잇서보았나」

「예절머슬썩에 육칠년동안이나 량반의덕에서 든안도좀히보았습니 다만은벌
셔이시굴와셔 산지도십여년이 되었습니 다」

데 십이 회

정옥조는 빙그림이우스며

「안이그리도 할멈이 지도를 잘하엿기에 어린아희가 그만콕썩썩하 지 엿지
하던지자에정남이하고는 피초에쥔친구가되겟스니 날마다 우리잇는곳으
로놀너보너여주게」

하고정조를도라다보며

「부인도그럿게말을하구려」

정조는간신히 목소리를너여

「예여보마누라 그이를날마다라도 우리게로놀너보너오」

옥남의유모는 비로소정조와말을괴회를엇음으로 정조를향하여 다시인스흔다
「이어른게서 부인되시는마님이온넋가 아이고 신식도곱기도하시고 식식시
갓하셔이 변변치못하져것이야도런넋하고 정답게노는것을보너서 그것도 무
슨천성의연분이던것이야오 아모조록 마님께셔도 이어미아비업는것을불상
이여여주시오 어린것이라도 부모를엇지성각을하코 연스잔이하는지모로겟
지오」

누

옥

생

누

옥

생

하며정조의안식을 눈여여보는 옥남의 유모의눈에는 눈물이가득하 다 정조는
다만들을뿐이라 로파는다시옥남을 도라보며

「너 저마님께 인스엿주었니 너코흔 미거흔거시라도 이럿게들귀야하시누구
나옥남이논다만 붓그러움을 먹음엇더라

정남은 옥남의손을익살고

「이이우리는 더리가셔놀즈」

「응그리 가셔보자」

하며 두소년은 엿귀를 언머아고 더편으로가려하거늘그로파는 옥남을부르며

「이이옥남아 점점어두어가논티 어티가셔논다고 그리하느냐」

「아니야요 괴져잇슬테요」

정옥조는 로파를향하여

「더아희의 부모논다도라갓다하니 아마상사름은안이든게지」

「안이올시다 부모가다죽은것시 아니라 지금어티셔든지 살아잇슬줄르느 암
이다만는………」

하며 말을맞치지안이하느니라 정옥조는 그말을이상히녁이여

「허허그러면 부모가죽은것도 안이로구 우린는듯더라하여도 관계가업스니
즈셔흔리악이를 좀하여유게나그려」